

## News

### 10월부터 예대금리차 공개…대출금리 제일 싼 은행 한눈에 본다

매일경제

이르면 10월부터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되고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 정확한 대출금리 파악 가능…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하기로 합의 새 공시 시스템에서 각 은행은 매달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 대출 평균 금리 밝혀…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

### 은행권 중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벌써 6% 눈앞…연내 7% 넘긴다

뉴스1

4대 시중은행의 내부 등급 4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4.14~5.78%로 연 6% 앞둬…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·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 잠재된 부실 현실화시 가속화 예상 중신용자 대출 금리는 연내 7% 넘길 것으로 보여… 자영업자 비롯한 취약 차주 이자 상환 부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… 시장금리 상승분 이상으로 금리 오를 것

### 대출해드립니다 시중은행, 대출 문턱 낮춰도…금리·규제에 외면

데일리안

국내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, 지난달에도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… 신용대출 잔액 총 132조 4,606억원으로 전월말대비 0.7% 감소 올해 들어 이러한 축소 흐름 지속 중…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향후 이자 압박 우려해 꺼리는 사람들 많아… 공포 심리 커지며 당분간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 예상

### KB금융지주, 회사채 주관사 확정…화려한 인수단

헤럴드경제

KB금융지주, 2년물과 3년물, 5년물, 10년물로 총 2,500억원의 회사채 발행 준비… 다음달 7일 수요예측을 통해 15일 발행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한화투자증권… AAA급이라 현재 발행 대기 중인 회사채 중 유일한 최우수 신용등급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몰릴 것 예상

### 한화·미래에셋생명 참전…GA시장 출혈경쟁 현실화

데일리안

대형 보험사들, GA시장에 뛰어들며 현장영업이 출혈 경쟁 양상으로 치닫아…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총 547억원으로 전년대비 32.0% 감소 특히 최근 대형 생보사인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선언하며 눈길… 주요 GA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으나 보험 판매량은 더욱 늘어… 전년대비 1.7% 증가

### 코로나19에도 보험사 해외진출은 '논스톱'

머니투데이

코로나19에도 국내 보험사들 현지업체와의 제휴,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한 금융 영토 확장에 포커스… 디지털 금융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베트남 한화생명은 영업망 구축 및 고객 전용 앱 보급,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영국에서 현지 금융사 지분투자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

### ATS 주주 명단에 증권사 30곳 오른다…막 내리는 67년 한국거래소 독점

아시아경제

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설립, 3분기 내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할 방침…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 증권사가 참여중이나 중소형 증권사들도 참여 의사 높음 지분구조 확정 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져… 대형 증권사가 평균 8%,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증권사가 평균 3% 가량 가져가…

### 연내 주식 신용거래 이율 10% 돌파하나

서울신문

신한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메리츠증권, 다음달 2일 신규 매수분부터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일부 인상 신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 0.25%p 상승, DB금투는 전 구간에 걸쳐 0.20%p 인상…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